종교교육학연구 제7권. pp.49-5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韓末 儒學敎育에 나타나는 衛正斥邪派의 改革論理"에 대한 논평

이 문 원
(중앙대학교)

발표자는 유교에 있어서의 개혁사상을 종교교육학회의 특성에 맞추어 유학의 개혁사상과 수구의 논리를 교육사 및 교육철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유자는 守舊·開化·隱逸·節義·變身으로 나누고 특히 節義論에 철저했던 人士들의 守舊的 관점에서 華西學派의 一人者였던 省齋 柳重敎의 『養知綠』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韓溪 李承熙의 孔敎運動을 義兵活動 및 抗日運動과 관련지워 종교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柳重敎는 長潭講會의 講論에서 다루었던 童蒙書·家訓流의 도덕적 규범을 萬事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만사를 그르친다는 道學的 正統을 강조하였다. 화서학파의 宗匠 이항로는 正德·利用·厚生 가운데 正德이 우선적인 과제로 보았고, 유인석은 진정한 실력은 도덕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중교의 養知綠은 한국역사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중국문화의 보편성 속에 깃든다고 보고, 이는 조선 선비의 의리정신을 강조한 斥邪의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중교의 長潭講會의 講論에서 영향받았던 인물로서는 유인석, 안승우, 서상렬 등이 있다.

한편, 韓溪 이승희는 유교를 종교화하여 이를 國敎로 정할 것으로 제안하고, 이는 중국의 康有爲, 梁啓楚가 발전시켜 民族主義운동을 전개한 사상운동이오, 사회운동으로서 韓末 우리나라 實情에 접합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유교는 우리의 民族

的 統合과 國魂의 실체를 강화하여 全 조선인들과 在滿 한인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사회운동으로까지 연계시켜 日帝에 對抗하는 한국 정통종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유교는 日帝時에도 民族的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고 동시에 전통적 유교의 폐단을 없애고 그 대신 유교를 국교화하여 國權回復을 위한 愛國思想 운동으로 전개하고 전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韓末의 유학자이면서 유교의 개혁사상을 주장한 학자로는 李承熙를 비롯하여 張志淵, 申采浩, 柳寅植, 朴殷植, 鄭寅普 등이 있다.

전통유교에 있어서 조선의 선비는 바로 도덕과 인간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大道로 보고, 조선의 선비는 현실정신을 비판하면서 道義를 보전하는 것이 불변의 가치로 판단하는 한편,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정신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민족의 元氣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발표자는 앞에서 발표 내용을 제한하였지만 다음의 것을 보완하였더라면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柳重教와 李承熙에 限定하여 論究하더라도 우리의 민족혼을 강력히 주장했던 신채호, 장지연, 정인보의 견해도 보완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고, 둘째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心學, 즉 陽明學의 관점에서도 박은식이 주장한 儒教求新論도 검토하여 보완하여 서술하였다면 유학교육이 宗教化하여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